

석유화학, 10% 절전 “불가능”

지경부, 협의 후 탄력 적용 ... 감축하면 가동중단 불가피

석유화학기업들이 겨울철 전력소비 피크시간대 10% 절전 의무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라남도 여수상공회의소는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겨울철 절전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12월21일 발표했다.

여수상의는 울산상공회의소, 서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식경제부와 민관규제개혁추진단 등에 건의문을 보내 “해당지역 석유화학용 전기 사용은 생산설비가 99% 이상, 비생산설비가 1% 이하여서 전력을 10% 감축하면 생산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석유화학산업은 연속공정인데다 중요공정이 화학반응을 가지는 특수한 것으로 일정한 피크시간에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생산설비를 중단하고 재가동하면 안전문제가 생길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 소비 피크시간에 대형기업에 적용되는 10% 절전 의무가 24시간 연속공정을 해야 하는 기업들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업종별 협회를 통해 12월23일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12월21일 발표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제지 등 설비가동을 조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24시간 연속 공정업종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감축률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12월15일부터 2012년 2월29일까지 피크시간인 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전력 소비를 전년대비 10% 감축하는 규정을 마련해 12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21>